

## 부록 1 - 선교의 하나님<sup>1)</sup>

오늘날 세계의 수많은 사람들은 기독교 선교 사업에 대해 지나칠 정도로 적대감을 갖고 있다.

왜냐하면 선교로 말미암아 민족 문화를 하나로 묶는 결속력이 완화되기 때문에 정치적으로는 분열을 야기하는 것으로 간주하며, 또 예수만을 믿으라고 배타적으로 주장하므로 종교적으로는 편협된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게다가 선교 사역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거만한 제국주의의 망령에 매여 있다고 공격받는다. 그리고 사람들을 그리스도에게로 회심시키려는 시도는 그들의 사생활에 대한 용납할 수 없는 간섭으로 생각하여 거절한다. 사람들은 “내 종교 문제는 내 개인의 일이야, 그러니까 쓸데없는 참견일랑 말고 당신 문제에나 신경 써요”라고들 말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기독교 선교가 기초하고 있는 근거를 이해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그 근거를 이해할 때에 우리는 세상 사람들의 오해와 반대에도 불구하고 성경적인 겸손과 용기를 가지고 선교 사역에 몰두할 수 있을 것이다. 좀더 정확하게 말해서, 신자들은 성경적인 동기와 원인을 알아야 한다. 왜냐하면 우리는 성경이 하나님의 계시인 동시에 그분의 뜻이 성경에 나타나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다음과 같이 묻는다. 하나님께서 과연 ‘선교’가 그의 백성을 향한 자기의 뜻이라고 성경에 계시하셨는가? 그렇다면 어떻게 생각하고 말하든 간에 선교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일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성경 전체에 걸쳐 하나님의 선교적 목적에 대한 증거가 풍부하긴 하지만, 이 글에서는 구약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 아브라함의 소명

우리의 이야기는 약 4천년 전 아브라함, 보다 정확하게 말해서 그 당시에 불린 바 대로 하면 아브람이라 칭하던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된다. 여기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사건에 관한 이야기가 있다.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본토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에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람이 하란을 떠날 때에 그 나이 칠십 오세였더라”(창 12:1~4)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우리가 이제 살펴보는 바와 같이, 여러 가지 요소를 포함한 복합적인 약속)을 하셨다. 그리고 그 약속을 이해하는 것은 성경과 기독교 선교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필수 불가결하다. 이것들은 아마도 성경에서 가장 함축적인 의미를 지닌 구절들일 것이다. 하나님의 목적 전체가 여기에 요약되어 있기 때문이다.

1) John Stott, *Perspective*, pp.1-16-1-24에서 인용한 것을 재인용하였습니다.

서론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배경, 즉 약속이 주어지게 된 상황을 고찰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연구할 나머지 부분을 둘로 나눌 것이다. 첫 번째로, 약속(정확하게 말해서 하나님께서 장차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은 대체 무엇이었는가)과 두 번째로 - 이 부분은 훨씬 길게 설명될 것인데 - 그 약속의 성취(하나님께서 자기의 약속을 과거에 어떻게 지켜 오셨고 앞으로 어떻게 지키실 것인가)이다. 어쨌든, 그 배경부터 시작해 보자.

창세기 12장은 갑작스럽게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니라”라는 말로 시작된다. 그래서 우리는 즉시 다음과 같이 질문하게 된다. “아브람에게 말씀하신 이 여호와와는 누구인가?” 그리고 “그 분께서 말씀하셨던 이 ‘아브람’은 도대체 누구인가?” 이 두 등장 인물이 난데없이 본문에 소개된 것은 아니다. 이 말의 배후에는 많은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그것들은 성경 전체를 여는 열쇠이다. 사실 창세기 11장까지의 이야기는 점차 이 사건에게로 이끌려 나온 과정이었고, 나머지 성경은 이 이야기로부터 흘러나온 그리고 이야기를 성취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그러면 이 본문의 배경은 무엇인가? 아브람을 선택하여 부르셨던 ‘여호와’는 바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고, 남자와 여자를 자신의 형상을 닮은 독특한 피조물로 만드심으로써 창조 사역이 절정에 달하도록 하셨던 그 하나님과 동일한 여호와이시다. 달리 표현해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결코 잊어버려서는 안된다. 성경은 흑성의 하나인 지구에서부터 시작하지 않고 우주에서부터 시작하며 그리고 나서 팔레스타인 땅이 아니라,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함께 시작한다. 즉, 하나님은 우주와 지구와 모든 인류의 창조주이기 때문에, 그분을 어떤 종족의 신이나, 모압의 신 그모스나, 암몬의 신 밀공(또는 몰렉)이나, 남성 신인 바알이나, 가나안의 여성 신인 아스다룟과 같은 사소한 우상의 위치로 전락시켜서는 결코 안된다. 하나님께서 다른 민족들에게는 관심이 없거나 혹은 그들을 포기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을 선택하셨다고 생각해서도 결코 안된다. 선택은 우월 주의와 동의어가 아니다. 반대로, 우리가 앞으로 곧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은 그들을 통하여 세상의 모든 민족을 축복하시기 위해서 한 사람과 그의 가족을 선택하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독교가 마치 많은 종교 중에서 한 가지 선택에 불과한 것처럼 세계 종교에 관한 어떤 책 속에 한 장으로 분류되어 취급될 때나, 또는 사람들이 - 마치 다른 종교의 하나님도 있는 것처럼 - “기독교의 하나님”이라고 말할 때, 심히 불쾌한 감정을 갖게 되는 것이다! 살아 계신 참 하나님은 오직 한 분밖에 없다. 그 분이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을 충분하고도 최종적으로 계시하신 하나님이시다. 유일신 사상은 선교의 기초를 이룬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했듯이,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딤후 2:5)이다.

창세기의 기록은 한 분 하나님에 의하여 만물이 창조되고 인간이 그분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는 것으로부터 시작하여 우리 자신의 창조주에 대한 우리의 반역과 그의 반역적인 피조물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이르기까지 계속된다. 하지만 이 심판은 언젠가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즉 완전히 부수어 버릴 것이라는, 그분의 첫 번째 복음 약속에 의하여 벗어날 수 있는 심판이다(창 3:15).

다음 여덟 장(창 4~11장)은 인간이 하나님과 동료 인간들로부터 점차적으로 소외되어지는 타락의 비참한 결과들을 서술한다. 앞에서 살펴본 것이 하나님의 소명과 약속이 아브라

함에게 임했던 배경이다. 세상은 온통 도덕적인 타락과 흑암과 분열로 얼룩져 있었다. 인간 사회는 점차적으로 붕괴되어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창조주 하나님은 자기 자신의 형상대로 만드셨던 인간(창 9:6)을 잊어버리지 않으셨다. 이처럼 신의 존재가 여지없이 부인되는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과 그의 가족을 부르셨고, 그들뿐만 아니라 그들을 통해 전세계를 축복하시겠다고 약속하셨다. 이제부터는 분열 상태가 그저 방관되어지지만은 않을 것이다. 사람들을 거두어들이는 ‘수확’이라는 위대한 과정이 지금 시작되고 있는 것이다.

## 약 속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은 도대체 무엇이었는가? 그것은 여러 가지 요소를 포함하는 복합적인 약속이었다. 첫째로, 그것은 ‘자손’에 대한 약속이었다. 그는 친척과 아버지의 집에서 나와야만 했고, 이에 대한 보상으로 하나님께서는 그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신다는 것이었다. 후에 이것을 나타내기 위하여 하나님은 그의 이름을 ‘아브람’(뛰어난 아버지)에서 ‘아브라함’(많은 무리의 아버지)이라고 바꾸셨다. 왜냐하면, 그 분께서는 그에게 “내가 너로 열국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17:5)고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둘째로, 그것은 ‘땅’에 대한 약속이었다. 하나님의 소명은 두 무대를 배경으로 그에게 임하였던 것 같다. 먼저 그의 아버지가 아직도 살아 있었던 갈대아 우르에서(창 11:31; 15:7)이고 다음은 그의 아버지가 죽고 난 후 하란에서(창 11:32; 12:1)였다. 어쨌든 그는 자기 자신의 땅을 떠나야 했고, 그 보답으로 하나님은 그에게 다른 나라를 보여주셨을 것이다.

셋째로, 그것은 ‘축복’에 대한 약속이었다. ‘축복한다’와 ‘축복’이라는 단어들 창12:2~3에서 5번씩이나 사용된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축복은 장차 모든 인류에게 임할 것이었다. 자손, 땅, 축복의 약속들 각각에 대해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장면에서 이어 계속되는 장들에서 설명되고 있다.

첫째, 땅. 아브라함이 관대하게 그의 조카 롯으로 하여금 그가 거주하기 원하는 곳을 선택하도록 허락한 후에( 롯은 기름진 요단 계곡을 택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 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창 13:14~15)

둘째, 자손. 잠시 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또 다른 시각적 도움을 베푸셔서, 그에게 이번에는 땅이 아니라 하늘을 쳐다보라고 말씀하셨다. 청명하고도 캄캄한 밤에 하나님은 그를 장막 밖으로 데리고 나가셔서 “하늘을 쳐다보고 별들의 숫자를 세어 보라”고 말씀하셨다. 이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명령인가! 아마 아브라함은 “하나, 둘, 셋, 다섯, 스물, 서른...” 하고 세어 보았겠지만, 곧 포기했음에 틀림없다.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네 자손도 이와 같으리라”고 말씀하셨다. 그리고 우리는 “그가 여호와를 믿었더라”라는 구절을 읽게 된다. 아마 그 당시 그는 80대였고, 그와 사라에게 여전히 아기가 없었지만,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으며, 하나님께서는 그를 보시기에 의롭다고 인정하셨던 것이다.

셋째, 축복.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이미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인정하셨다. 혹은(신약 성경의 표현을 빌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를 의롭다”고 하셨다. 이보다 더 큰 축복을 상상할 수가 없을 것이다. 그것은 은혜 언약의 기초가 되는 축복이다. 몇 년 후에

하나님께서서는 아브라함에게 그것을 상세히 설명하셨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와 네 대대 후손의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나와 네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창 17:7~8). 그리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신다고 하는 그 분의 은혜로운 언약이나 서약에 대한 눈에 보이는 외적인 표시로서 그들에게 할례를 주셨다. 후에 여러 번 반복되는 그런 계약 방식을 우리는 이 구절에서 처음 듣게 된다. 즉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는 것이다.

땅, 자손, 축복. “그러나 그 모든 것이 선교와 무슨 관계가 있는가?”라고 당신은 성급하게 묻고 싶을는지 모른다. 나는 “물론, 모두 다 관련이 있습니다. 조금만 더 참으면 알게 될 것입니다.”라고 대답할 수 있다. 이제 약속으로부터 성취에로 주제를 바꾸어 보자.

### 성취

구약에 나타난 예언의 성취에 대해서는 종종 오해가 있을 뿐 아니라 적지 않은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내가 생각하기에 우리 모두가 동의하리라고 보는 원리 즉 신약 성경 저자 자신들이 구약 성경의 예언은 단회적인 것이 아니라 보통 삼중적인 - 즉 과거적, 현재적, 미래적인 - 성취로 이해하였다는 사실은 대단히 중요하다. 과거적 성취는 이스라엘 민족의 생활 속에서 즉각적으로나 역사적으로 일어난 성취였다. 현재적 성취는 그리스도와 그의 교회 속에서 이루어진 중간적이거나 복음적인 성취이다. 미래적 성취는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이루어질 궁극적이거나 종말론적인 성취이다.

*아브라함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은 그의 육체적 자손, 곧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즉각적이고 역사적으로 성취되었다.*

많은, 참으로 셀 수 없을 정도로 무수한 자손에 대해 아브라함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은 그의 아들 이삭(창 26:4 “하늘의 별과 같이”)과 손자 야곱(창 32:12 “바다의 모래같이”)에게 확인되었다. 점진적으로 그 약속은 문자 그대로 실현되기 시작했다. 우리는 이런 성취되어 가는 과정 속에서 몇 가지 역사적인 장면들을 뽑아 볼 수 있을 것이다.

첫 번째는 애굽에서의 노예 시대와 관계되는데,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이 증다하고 번식하고 창성하고 심히 강대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출 1:7, 행 7:17 비교). 내가 언급하고자 하는 다음 장면은 몇 년 후에 나타난다. 그때는 솔로몬 왕이 이스라엘을 가리켜 “저희는 큰 백성이라 수효가 많아서 셀 수도 없다”고 말하였다(왕상 3:8). 세 번째 장면은 그로부터 약 350년이 지난 이후였다. 그때 예레미야는 이스라엘에게 임박한 심판과 포로로 잡혀갈 것에 대해서 경고했다. 그리고 나서 아울러 하나님께서 회복시킬 것이라는 약속을 다음과 같이 덧붙였다. “하늘의 만상은 셀 수 없으며 바다의 모래는 측량할 수 없나니 내가 그와 같이 내종 다윗의 자손과 나를 섬기는 레위인을 번성케 하리라”(렘 33:22).

아브라함의 자손에 대해서 그렇게 성취되었다고 하자. 그렇다면 땅에 대한 약속은 어떻게 되었는가? 다시 한 번 경배와 감사하는 마음으로 약속에 대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보자. 왜냐하면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약속을 기억하심으로써, 자기 백성을 애굽의 노예 상태에서 먼저 구원하시고 그와 같은 이유 때문에 ‘약 속의 땅’(출

2:24; 3:6; 32:13)이라 불리는 광대한 땅을 그들에게 주셨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바벨론에 포로로 잡힌 지 약 700년 후에 그 땅을 다시 돌려주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나 육적인 자손들 어느 누구도 그 땅을 완전히 상속받지는 못했다.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된 대로, 그들은 “믿음을 따라 죽었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다.” 그 대신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서 그들은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라보았다”(히 11:8 ~ 16, 39 ~ 40을 보라).

하나님은 - 적어도 부분적으로나마 - 자손과 땅에 대한 자신의 약속을 지키셨다. 그럼 이제 축복에 대해서는 어떠한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맺으신 자신의 약속을 확인하시고 또한 분명히 하셨으며, 자신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되심을 서약하셨다(예, 출 19:3 ~ 6). 그리고 구약의 나머지 부분을 통해 볼 때 불순종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멸망하는데 반해서,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자들을 계속 축복하셨다.

아마도 가장 극적인 예는 호세아 예언의 첫 부분일 것이다. 거기에서 호세아는 그의 세 자녀에게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무섭고도 점진적인 심판을 묘사하는 이름들을 지어 주었다고 한다. 호세아는 그의 말아들에게, “하나님께서 흘으실 것이다.”라는 뜻을 가진 “이스르엘”이란 이름을 붙여 주었다. 다음에는 “공홀히 여김을 받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로루하마”라는 이름을 딸에게 붙여 주었는데 이는 하나님께서 더 이상 자기 백성을 공홀히 여기거나 용서치 않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호세아는 “나의 백성이 아니다.”라는 의미를 가진 “로얄미”라는 이름을 둘째 아들에게 주었다. 이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제 그의 백성이 아니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백성들에게 얼마나 끔찍한 이름들인가! 이 이름들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과는 너무나도 모순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하나님은 거기에서 멈추시지 않으신다. 왜냐하면 다가오는 심판 뒤에는 반드시 회복이 있을 것이었기 때문이다. 그것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한 번 더 그대로 되풀이 하는 말로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측량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다”(호 1:10). 다시 말해서 호세아의 자녀들 이름 속에 암시된 심판들이 언젠가는 뒤집어지리라는 약속의 표현이다. 흘러지는 대신 모아질 것이며(“이스르엘”이란 단어는 두 가지 의미를 다 내포하고 있다.), “공홀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나의 백성이 아니다”라는 말은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될 것이다(호 1:10 ~ 2:1).

놀라운 것은 사도 바울과 베드로가 둘 다 호세아서의 이 구절들을 인용하였다는 사실이다.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의 보다 많은 증가에서가 아니라, 이방인들이 예수님의 공동체 속에 포함된다는 것에서 예언의 성취를 보고 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공홀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공홀을 얻은 자니라”(벘전 2:10, 롬 9:25 ~ 26과 비교).

이런 신약 성경적 시각은 우리가 구약의 예언서를 읽을 때 대단히 필요하다. 왜냐하면 우리들이 구약에서 미처 생각하지 못하던 것을, 즉 하나님의 약속된 축복이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로부터 어떻게 “세상의 모든 족속들”에게로 넘칠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설명을 바로 신약 성경이 해결해 주고 있기 때문이다. 이스라엘이 비록 “이방에 공의를 베푸는”(사 42:1 ~ 4, 6; 49:6) 사명을 가졌지만 우리는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지 못하고

있다. 이 예언들은 단지 주 예수 자신 안에서만 성취된다. 왜냐하면 그의 날이 이르러야 비로소 이방인들이 실제로 구속받은 공동체에 가입되기 때문이다. 이제 이 점을 살펴보자.

*아브라함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은 그리스도와 그의 교회 안에서 중간적이고 또 복음적으로 성취되었다.*

모든 신약 성경에 걸쳐 첫 단어는 거의 아브라함이란 이름이다. 마태복음은 이렇게 시작한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마태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의 시초를 찾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을 추적하여 아브라함에 이르고 있는 것이다. 마태는 자기가 기록하고 있는 것이 약 2천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하신 하나님의 옛 약속의 성취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눅 1:45~55, 67~75을 보라).

그러나 처음부터 마태는 사람들로 하여금 그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게 하는 것은 아브라함으로부터 내려오는 육적 혈통이 아니라, 일정의 영적 혈통, 즉 회개와 오실 메시아를 믿는 믿음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다. 다음 구절은 그의 말을 들으려고 몰려든 군중들에게 전한 세례 요한의 메시지이다.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막 3:9, 눅 3:8, 요 8:33~40을 비교하라). 그의 말의 의미는 청중들을 놀라게 했는데, 그 이유는 “아브라함의 자손은 어느 누구도 결코 버림받을 수 없다.”는 것이 당시 모든 사람들이 갖고 있던 신앙이었기 때문이다.<sup>2)</sup>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비록 돌들로부터는 아니라 할지라도, 그와 똑같이 믿기 어려운 출처, 즉 이방인들로부터 아브라함의 자녀들을 일으키시었다! 그래서 마태는 그가 사복음서의 기자들 가운데 가장 유대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후에 예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신 것으로 기록하고 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값이 있으리라”(마 8:11~12, 눅 13:28~29 비교).

이런 말들이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유대인 청중들에게 얼마나 충격을 주었고, 또 뒤죽박죽 혼란시켰는지를 우리로서는 제대로 이해하기가 어렵다. 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들이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들에 대한 정당한 자격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유대인들조차 자격을 박탈당하는데 반해서 오히려 약속을 받기로 되어 있다는, 아니 약속을 빼앗기까지 하는 그 국외자들이 도대체 누구란 말인가? 유대인들은 분개하였다. 그들은 아브라함과 맺으신 하나님의 언약에서 세상의 모든 족속들에게 축복이 흘러 넘칠 것이라고 약속되어 있는 부분을 완전히 잊고 있었다. 이제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씨인 메시아 예수님과 관계 속에서 비로소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라는 사실을 배워야만 했다.

사도 베드로는 적어도 오순절 직후에 행한 자신의 두 번째 설교에서 이 사실을 파악하기 시작했던 것 같다. 거기에서 그는 다음과 같은 말로 유대 군중들에게 설교했다. “너희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으로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그 종(예수)을 세워 복

2) J. Jeremias, *Jesus' Promise to the Nations*, SCM Press, 1958, p.48.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행 3:25~26). 그것은 대단히 주목할 만한 설명이다. 왜냐하면 그는 회개와 의라는 도덕적인 말로써 축복을 설명하기 때문이며, 또 예수님이 유대인에게 “먼저” 보냄을 받았다면 아마 다음으로는 이방인에게 보냄을 받은 것으로 추정되어지기 때문이다. 이방인들은 ‘멀리’(행 2:39과 비교)있었던 ‘세상의 족속’이었지만 지금은 그 축복을 공유하게 된 것이다.

그런데, 이 놀라운 주제가 충분히 발전되게끔 하는 사역은 사도 바울에게 주어졌다. 왜냐하면 그는 이방인의 사도가 되도록 부름을 받고 임명되었기 때문이며, 그에게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 즉 지금까지는 숨겨져 왔던 목적이 계시되었기 때문이다. 이 목적은 유대인과 이방인들을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한 것이다(엡 3:6).

바울은 아주 담대하게 외치기를,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 자녀가 아니다”(롬 9:6~7)라고 하였다.

그러면 아브라함의 참 자손들, 즉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참 수혜자는 도대체 누구인가? 바울은 이점에 있어서 우리에게 너무나 분명하게 대답해 주고 있다. 즉, 그들은 모든 인류 중에서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들이라는 것이다. 로마서 4장에서 바울은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았을 뿐 아니라, 그가 할례 받기 전에 이 축복을 받았다고 가르친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할례를 받았든지 할례를 받지 않았든지 간에(즉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그의)믿음의 본을 좇는”(롬 4:9~12) 모든 자의 조상이다. 만일 우리가 아브라함의 믿음을 공유하고 있다면 그 때에 “그는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함과 같이 되는 것이다(16, 17절). 따라서 아브라함에게서 난 육적 혈통이나 유대인과 같은 육적 할례가 어떤 사람으로 하여금 아브라함의 참 자녀가 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믿음으로 말미암아 참 자녀가 되는 것이다. 아브라함의 참 자손들은, 그들이 인종적으로 유대인으로 태어나든 이방인으로 태어나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들이라는 것이다.

그러면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유업으로 받을 ‘땅’은 무엇인가? 히브리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믿음으로 들어가게 되는 ‘안식’이라고 말한다(히 3, 4장). 바울은 대단히 두드러진 표현으로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들에게 세상의 후사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이라고 말한다(롬 4:13). 가정에 불과하지만 바울이 고린도 사람들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만물이 다 너희 것이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 것이요”(고전 3:21, 22)라고 편지 쓸 때에도 똑같은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말미암아 신자들은 만유의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으로 후사된 자들이다.

약속된 축복과 그 유익들에 대한 다소 비슷한 가르침이 바울이 쓴 갈라디아서 3장에도 나타난다. 그는 먼저 아브라함이 어떻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받았는가를 되풀이해서 말하고 나서 계속해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그러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이며 그래서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 자인 줄 알지어다”(6~9절). 그러면 모든 족속이 함께 받을 축복이란 무엇인가(8절)? 한 마디로 말해서, 그것은 구원의 축복이다. 우리는 율법의 저주아래 있었지만,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하여 저주받은 자가 되심으로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시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축복이 이방인들에게 미치게 하여, 우리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다”(10~14절).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들로 하여금 아브라함의 축복과 칭의의 축복(8절), 그리고 성령의 내주하심(14절)의 축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저주를 짊어지셨다. 바울은 3장 마지막 절(29절)에서 그것을 다음과 같이 요약해 준다.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그러나 이야기는 아직 다 끝나지 않았다. 여전히 앞으로 이루어질 약속 성취의 세 번째 단계가 있다.

*아브라함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은 모든 구속받은 자들의 최후 운명에서 궁극적이고 종말론적인 성취를 보게 될 것이다.*

요한 계시록에는 아브라함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한 번 더 언급되어 있다(계 7:9이하). 요한은 환상 중에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를 본다. 그것은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온 전 세계적인 무리들이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왕적인 통치를 상징하는 “보좌”앞에 서 있다. 즉 그의 나라는 마침내 도래했고, 그들은 그 분의 은혜로운 통치의 모든 축복을 누리고 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자신의 임재 가운데 보호하신다. 주리고 배고프고 타는 듯한 더위로 고통 당하던 황량한 날들은 모두 사라져 갔다. 마침내 그들은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묘사되지 않고 “결코 마르지 않는 생수의 샘이 흘러 나오는 땅”으로 묘사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갔다.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이 축복을 유업으로 받게 되었던가? 그것은 그들이 한편 “큰 환난을 통과하였기”(모든 시험과 고통이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분명히 언급함)때문이지만, 오히려 “그들의 두루마기를 어린양의 피로 씻어서 깨끗케 하였기” 때문이다. 즉,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만 죄를 씻음 받았고 의의 옷을 입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더라.”

개인적으로 말해서, 나는 장차 영원한 미래에 아브라함에게 하신 하나님의 그 옛 언약이 이런 최종적으로 성취되는 것을 본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감격스럽다. 왜냐하면 여기에 아브라함의 모든 영적 자손들 즉, 바다의 모래와 밤하늘의 별들과도 같이 많은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들”이 있기 때문이다. 또한 여기에 축복 받은 “땅의 모든 족속들”이 있다. 왜냐하면 이 무수한 군중은 모든 나라에서 온 백성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또한 여기에 약속된 땅, 즉 하나님의 은혜로운 통치로부터 흘러나오는 모든 부유한 축복이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해 자신의 피를 흘리시고, 구원을 받기 위하여 그를 부르는 모든 자에게 자신의 축복을 주시는, 아브라함의 씨인 예수 그리스도가 여기에 계시는 것이다.

## 결론

우리가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의 약속과 그 성취로부터 하나님에 대해 배운 바를 정리해 보고자 한다.

첫째, 그 분은 역사의 하나님이다. 역사란 제 멋대로 흘러가는 사건들의 집합이 아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자신이 영원 전부터 생각하신 계획을 제 때에 맞추어 수행하시고



게시며 영원한 미래에 완성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역사적 과정 속에서 아브라함의 씨인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적 인물이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들이라면 우리가 곧 아브라함의 자손됨을 다 함께 기뻐하자. 우리는 그 분의 영적 대열에 속해 있다. 만일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받았고, 하나님의 영접을 받았고, 또한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축복을 받았다면, 우리가 바로 4천년 전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의 축복을 오늘 날 받는 자들인 것이다.

둘째, 그 분은 언약의 하나님이다. 즉, 하나님은 약속을 맺으실 정도로 은혜로우시며, 자신이 하신 약속은 반드시 지키신다. 그 분은 끝까지 사랑하시며 신실하신 하나님이다. 그 분께서 항상 그의 약속을 즉시 성취하지는 않으신다는 사실을 명심하라. 아브라함과 사라는 “다 믿음을 따라 족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였다”(히 11:13). 즉 비록 이삭이 약속의 성취로써 그들에게서 태어나긴 하였지만, 그들의 자손은 아직도 많지 않았으며, 땅도 그들에게 주어지지 않았으며, 족속들도 축복을 받지 못하였다. 모든 하나님의 약속은 진실되다. 그러나 “오래 참음과 기다림으로”(히 6:12) 이를 이어 받게 된다.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림으로써 만족해야 한다.

셋째, 그 분은 축복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축복하노라”라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창 12:2). 베드로는 “하나님이...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그(예수님)을 보내셨다”고 되풀이해서 말했다(행 3:26). 자기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태도는 긍정적이지고 건설적이지하며, 부요케 하시는 것이다. 심판은 그의 “예외적인 일”이다(사 28:21). 그의 주되고 특징적인 사역은 백성을 구원하는 축복인 것이다.

넷째, 그 분은 자비의 하나님이다. 나는 항상 천국의 구속받은 사람들이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일 것이라는 계시록 7:9의 말씀으로부터 많은 위안을 얻곤 하였다. 그리스도인들이 항상 지극히 적은 소수인 것처럼 보여 왔기 때문에, 나는 과연 어떻게 이런 일이 성취될 것인지 잘 모르고 있다. 그렇지만 성경은 우리가 위로를 받도록 하기 위해 그것을 서술하고 있다. 성경이 지옥의 무시무시한 실제성과 영원성을 가르치기 때문에 비록 성경적인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도(모든 인류가 궁극적으로 구원받을 것이라고 믿는) 보편주의 자일 수는 없지만, 그래도 성경적인 신자는 구속받은 자들이 어쨌든 셀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전 세계적인 무리일 것이라는 것을 주장할 수 있으며, 더 나아가서 주장해야 한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은 성취될 것이며, 아브라함의 씨도 땅의 티끌,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같이 셀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다섯째, 그 분은 선교의 하나님이다. 족속들은 저절로 모여들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땅의 모든 족속들을 축복하시기로 약속을 하셨지만, “아브라함의 씨”를 통하여 그렇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셨다(창 12:3; 22:18). 이제는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기 때문에 땅의 모든 족속들은 우리가 복음을 들고 그들에게 나아가야만 축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이다.

나는 “땅의 모든 족속”이라는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새겨지기를 기도한다. 바로 이 표현이 살아 계신 성경의 하나님이 선교의 하나님이심을 가장 잘 나타내 주고 있다. 우리의 모든 소심한 지방성과 편협한 민족주의, 우리의 인종적 자만(백인이든 흑인이든 간에), 우리의 생색을 부리는 온정주의와 오만한 제국주의를 비판하는 것도 또한 바로 이 말씀이다. 만일 우리의 하나님이 “땅의 모든 족속”의 하나님이시라면, 우리가 어떻게 감히 다른 피부색

과 문화를 가진 사람들에 대해 적대적이거나 경멸적이거나 무관심하기조차 한 태도를 가질 수 있겠는가? 우리는 범세계적인 하나님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범세계적인 비전을 가진 범세계적인 그리스도인이 될 필요가 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4천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하신 자신의 약속을 우리가 결코 잊지 않도록 도우실 것이다.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족속들이 복을 받을 것이니라.”